

“정밀한 명암, 생생한 색상 구현” 삼성, 마이크로 RGB TV 확대

RGB LED로 명암·색상 정밀 제어 AI 엔진으로 콘텐츠별 최적 색상 구현 깊은 검은색과 밝은 장면 섬세 표현 BT2020 100% 달성·VDE 인증획득 CES 2026 전시로 차세대 화질 체험

삼성전자가 최신 화질 기술이 집약된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최초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형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빨강,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μm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보다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한다. 소자가 미세해진 만큼 깊은 검은색과 밝은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정한 색 정확도 지표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해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 VDE로부터 ‘Micro RGB Precision Color’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고성능 AI 엔진을 탑재해 모든 콘텐츠에서 압도적인 색상을 구현한다.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마이크로 RGB AI 엔진은 ▲콘텐츠를 4K로 업스케일 해주는 ‘4K AI 업스케일링’ ▲AI가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 등의 성능을 갖춰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또 삼성 마이크로 RGB TV는 ▲빅스비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을 갖춰 TV 업계 최다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해 사용자는 다양한 AI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 RGB TV는 단순 스크린 역할을 넘어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을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새롭게 떠오르는 프리미엄 제품인 마이크로 RGB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더 퍼스트룩’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마이크로 RGB TV를 전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탑승자 맞춤형 AI 차량 솔루션 공개

CES서 맞춤형 체험존 운영 OLED AI로 운전석 정보 제공 시선 인식으로 안전·편의 강화 AI 큐레이션으로 뒷좌석 경험

LG전자가 탑승자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공개한다.

LG전자는 오는 1월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탑승자 맞춤형 공간을 구현하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CES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은 ▲전면유리에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석 전채로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디스플레이 솔루션’ ▲운전석과 조수석에 비전 AI를 적용해 시선에 따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전 솔루션’ ▲AI 큐레이션으로 뒷좌석에서 콘텐츠, 영상 통화, 번역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의 3가지로 구성됐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체험존에서 관람객은 투명 OLED가 적용된 전면유리를 통해 AI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나타나면 신호등 주변에



LG전자가 CES 2026에서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해 운전석부터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차량 내부 모듈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자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대기 시간을 표시해 주는 등 AI가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판단한 뒤 엄선해 보여준다.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인 운전석에서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미지를 재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전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인캐빈 센싱 기술에 AI가 적용된 운전석 및 조수석을 경험할 수 있다. AI가 운전자 시선을 분석해 일정 시간 이상 시선 이탈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전환한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탑승자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탑승자의 시선이 멈춘 전광판에서 광고 중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AI가 적용된 차량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인다. 탑승자는 AI 큐레이션을 통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험을 할 수 있다. AI는 창문 건너 펼쳐진 풍경을 인식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창문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와 이미 논의 중인 인캐빈 센싱 등 양산 중인 솔루션에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했다”라며 “이러한 혁신을 수년 내 현실로 만들어 인공지능 중심차량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D, OLED 기술 브랜드 ‘탠덤’ 론칭

RGB 적층으로 대·중형 OLED 경쟁력↑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브랜드를 론칭하며 OLED 기술 철학과 차별적 고객가치를 적극 소통하고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입지 강화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기술 브랜드 ‘탠덤 WOLED’와 ‘탠덤 OLED’를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OLED 소자의 적층 구조를 통해 장수명·고휘도·저전력 등 내구성과 성능을 높인 LG디스플레이 OLED의 강점을 강조하고자 ‘탠덤’을 브랜드 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형 OLED 기술(TV 및 모니터)과 중소형 OLED 기술(차량용, 태블릿, 노트북 등)을 분리하여 특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각각의 기술 브랜드를 분류했다.

대형 WOLED의 브랜드 명은 ‘탠덤

WOLED’다.

업계 최초로 빛의 삼원색인 R(레드), G(그린), B(블루) 소자를 각각 독립된 층으로 쌓은 적층 구조를 의미하는 탠덤에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의 고유 특성인 화이트 광원을 의미하는 ‘W’를 더해 직관적인 브랜드명을 완성했다.

중소형 OLED 브랜드는 ‘탠덤 OLED’로 RGB 소자층을 2개로 쌓은 기술적 특징을 반영했다.

LG디스플레이 OLED의 기술 브랜드는 사업 시작 13년만에 처음이다. 기술 단위 수준에 머물던 명칭들을 ‘탠덤 WOLED’와 ‘탠덤 OLED’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했다. 이로써 고객에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기술 브랜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처음 공개된다.

/차현정 기자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로 설비 신뢰성 강화

HD현대오일뱅크

노후 핵심설비 선제 관리

HD현대오일뱅크가 주요 생산설비의 신뢰성을 높여 공장 가동 효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의 핵심설비의 노후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티에이징(Anti-Ag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35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대산공장은 1989년 제1공장 준공 이후 1996년 추가 증설을 거쳐 2011년 신규 고도화 공정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정기보수와 설비 보완 투자를 지속해 왔지만, 주요 장치들의 가동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비 신뢰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기 개선 투자나 문제 설비 위주의 긴급 교체 등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과 근본 원인 중심의 개선, 조직·설비 간 통합 검토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장 가동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설계·검사 등 주요 부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0여 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설비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올해에는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해 재질 업그레이드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주요 개선을 완료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비상 가동정지(Shutdown) 및 경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7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1단계 고위험·다량 설비 개선을 마친 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시스템 개선과 설비 신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2단계를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위아, AI 공조·차세대 구동기술 첫 전시

듀얼 등속조인트·ARS·WDS 공개

현대위아가 내년 1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에서 공조시스템과 구동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공개한다.

현대위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위아가 CES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CES에서 현대위아는 ‘연결의 여정’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리고 미래형 자동차 공조 시스템인 ‘분산배치형 HVAC’를 최초 공개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탑승객의 체온과 외부

환경,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좌석별로 최적화된 공기 온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전시관의 ‘열관리 체험형 차량’에서 ‘복사열’을 이용해 우리나라 온돌의 따뜻함을 구현한 새로운 차량 난방과 개인별 에어컨을 체험할 수 있다.

자동차 조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구동 부품도 대거 선보인다. 현대위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듀얼 등속조인트’는 자동차의 구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등속조인트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로, 최대 조향각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